

## 햄릿 텍스트 유령 규정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중심으로 -

201821891 문화콘텐츠학과 전영조

### <목차>

1. 햄릿 텍스트 유령 규정 : 유령은 존재한다.
2. 유령이 존재하는 이유
  - 2-1. 등장인물들의 증언(보초병, 호레이쇼, 햄릿)
  - 2-2. 유령의 증언(선왕의 죽음의 진실: 클로디어스 살해방식)
3.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반박 - 유령의 본질적 특성을 통해
  - 3-1. 동양의 유령과 서양의 유령 구분
  - 3-2. 동양의 유령과 햄릿 유령의 공통점
4. 햄릿 텍스트 유령 규정과 불확실성

### 1. 햄릿 텍스트 유령 규정 : 유령은 존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는 덴마크 선왕의 유령이 등장한다. 이 유령은 햄릿 극 이야기를 이끄는 하나의 큰 장치가 된다.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려 주며 복수를 부탁하는데, 이 사건이 햄릿에서 일어나는 대참극의 시발점이 된다.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햄릿에서 등장하는 유령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이는 바로 햄릿 텍스트 전체의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속성 때문이다. 햄릿의 세계는 확실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닌 불확실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령마저도 햄릿의 정신 작용의 일환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규정하기 힘든 불확실한 존재로 만든다.

나는 “유령,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텍스트를 통해 햄릿 세계의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중 “왜 유령이 누군가에겐 보이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햄릿 1막 1장과 4장에서 호레이쇼와 보초병 등 네 사람은 분명 유령을 육안으로 보았다. 하지만 3막 4장에서 햄릿이 왕비를 거칠게 비난하는 장면에서는 햄릿만 유령을 보았고, 왕비는 유령을 보지 못했다. 왜 유령은 햄릿에게만 보이는 것일까? 또한 1막에서 유령을 본 호레이쇼와 보초병은 왜 5장에서 유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햄릿 텍스트 유령의 존재에 대해 규정해보고 햄릿 텍스트 전체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나는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유령이 없다면 주인공인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을

상상할 수도, 논할 수도 없다. 나는 유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햄릿 텍스트를 통해 설명하고, 유령의 존재를 규정해보겠다.

## 2. 유령이 존재하는 이유

유령의 존재는 햄릿 텍스트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햄릿 텍스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증언과 유령의 증언은 유령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기존 콘텐츠에 등장하는 유령을 통해 햄릿의 유령을 비교 분석해보고 햄릿의 유령을 규정하고자 한다.

유령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1. 등장인물들의 증언을 통한 유령의 존재

햄릿 1막 1장에서 보초병인 바나도, 프란시스코는 마셀러스, 호레이쇼와 보초 근무를 교대한다. 이들은 보초 근무 교대 중 유령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어, 그게 오늘 밤에도 다시 나타났어?”<sup>1)</sup>

위 구절을 보면, 이미 이전부터 유령이 나타났었고, 네 사람 모두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령에 대한 대화로 극을 시작하면서 유령을 통해 햄릿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바나도, 마셀러스, 호레이쇼는 다시 한번 유령을 보게 되는데

“쉬, 그만해. 저것 봐, 그게 다시 왔어.” “이전처럼 죽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sup>2)</sup>

라는 말을 통해 유령이 죽은 선왕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막 2장에서는 호레이쇼가 햄릿 왕자에게 밤마다 궁 초소에 선왕의 유령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때 햄릿 왕자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유령의 모습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한번 호레이쇼의 말에 따르면, 유령의 모습은 죽은 선왕이 노르웨이와 싸웠을 당시 갑옷을 입고 무장한 채 면갑이 열려있는 모습으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들은 햄릿은 1막 4장, 성 위의 망대에서 선왕의 모습을 한 유령의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보초병, 마셀러스, 호레이쇼의 증언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결국 바나도, 프란시스코, 마셀러스, 호레이쇼, 햄릿까지 유령의 존재를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모두가 같은 선왕의 유령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유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상황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정신 작용을 일으켜 선왕의 모습을 한 환각을 보게 한 것이 아닌 실제로 유령이 존재했기 때문에 모두 같은 모습의 유령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유령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2. 유령의 증언(선왕의 죽음에 대한 진실: 클로디어스 살해방식)

다음으로 우리는 유령의 증언을 통해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햄릿 1막 5장에서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이 죽은 진짜 이유에 대해 말을 한다.

---

1)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최종철, 민음사, 2009, 11쪽.

2) 위의 책, 12쪽.

“자, 햄릿, 들어봐. 정원에서 자는데 독사가 날 물었다고 발표됐다-그래서 덴마크 전체가 조작된 내 사망 경위로 새까맣게 속고 있다. … 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 독사가 지금 왕관을 쓰고있음을.”<sup>3)</sup>

유령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덴마크 모두가 속고 있다며, 진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독사(클로디어스)라고 말한다.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의 죽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도 있다.

“내가 방심하고 있을 시간에 네 삼촌이 저주받을 독증병을 가지고 몰래 들어와, 나병증을 일으키는 증류액을 내 귀에 쏟아부었는데 …”<sup>4)</sup>

이처럼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이 죽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유령이 존재했기 때문에 햄릿 왕자는 선왕이 죽은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유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햄릿 왕자는 선왕이 클로디어스에게 죽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또 클로디어스에 어떤 방식으로 살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조차 없다.

햄릿이 정신 작용을 일으켜 유령을 본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햄릿은 어떻게 선왕이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 또한 유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햄릿은 ‘쥐뿔’이라는 극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적었을까? 물론 햄릿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적었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쥐뿔이라는 극에서 클로디어스가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면 복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결국 유령이 존재했으며 유령이 진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쥐뿔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고, 결국 움찔한 클로디어스가 선왕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3막 3장에서 클로디어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결국 유령이 말한 살해 과정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령의 증언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령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3.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반박 - 유령의 본질적 특성을 통해

그렇다면 왕비의 내실에서 왜 왕비는 유령을 보지 못했을까? 나는 왕비가 유령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유령의 존재가 그저 햄릿의 정신작용에 의한 환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햄릿 극에서 유령은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유령을 보았던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것을 유령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콘텐츠의 유령의 특징을 햄릿의 유령의 특징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1. 동양의 유령과 서양의 유령 구분

우리에게 유령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유령은 왜 생겼고 언제부터 이승 사람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됐을까?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콘텐츠 속에서 유령은 이승에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존재처럼 나온다. 나 또한 유령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남아 있는 것이 아닌 자기의 풀지 못한 숙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사람을 찾아가

3)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최종철, 민음사, 2009, 44쪽.

4) 위의 책, 45쪽.

자기의 과제에 마지막을 찍어주기 위해 우리의 곁을 못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령은 여러 콘텐츠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는 기존 콘텐츠 속 유령의 특징과 햄릿 유령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햄릿 유령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기존 콘텐츠 유령을 동양의 유령과 서양의 유령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유령을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동양과 서양에 따라 서로 달라서 유령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종만(2007)에 따르면, 공포의 근원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공포가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포’가 하나의 문화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동양의 유령과 서양의 유령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해보자면 서양의 유령의 모습, 공포의 대상은 ‘마귀’, ‘악령’이다. 서양의 유령 영화 콘텐츠를 본다면 컨저링, 워킹데드, 에나벨 등 좀비같거나 괴물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의 옳고 그름이 확실한 이분법적인 사유 방식과 그리스도교적 성격이 문화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유령은 선이 아닌 절대 악이며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서양은 유령을 태초부터 악한 존재, 절대로 선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서양의 모든 유령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햄릿 유령도 서양의 유령이지만 앞서 말한 괴물적 악령의 모습과는 다르다.)

반면에 동양에서 바라보는 유령은 샤머니즘적 성격의 파생물이다. 동양의 유령은 ‘악’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회복하면 유령은 다시 착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쉽게 말해 동양에서 바라보는 유령은 애초에 악한 존재가 아니고 삶에 대한 미련이나 한이 남아있는 이들이 이승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은 유령의 존재나 형태 자체를 상반되게 바라본다.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콘텐츠 속 유령의 모습은 <컨저링>에 나오는 서양 유령같은 모습일 수 있다. (컨저링은 외국의 저택에 찾아가서 그곳에 위치한 유령에게 온갖 고통을 겪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컨저링> 시리즈는 동일한 패턴으로 유령들이 나타나서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구조이다. 컨저링 속 유령은 스스로 상대를 놀라게 하며 자신이 직접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컨저링 속 유령의 모습은 서양 유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서양 유령인 햄릿의 유령과는 사뭇 다른 패턴이다. 햄릿 유령은 간접적으로 햄릿 왕자에게 복수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햄릿 유령은 동양의 유령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동양에서 나타나는 유령 특성이 햄릿 유령의 특성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동양의 유령을 통해 햄릿 유령을 비교 분석해보고 유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 3-2. 동양의 유령과 햄릿 유령의 공통점

동양 유령의 경우 흔히 중국의 강시, 일본의 한야(도깨비), 한국의 처녀귀신, 구미호 등이 동양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유령이다. 특히 한국의 처녀귀신은 21세기까지 전래되는 대표적 유령이다. 유종만(2007)에 따르면 귀신은 인간의 원통하고 억울한 혼이다. 한국의 처녀귀신 또한 원한 때문에 이승을 떠도는 귀신으로, 원한이 해소되면 사람을 돕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원한을 풀기위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원기가 있기는 하지만 원한 해결 방법은 서양에 비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양의 유령 퇴치법은 원한을 해소시키는 ‘해원’을 해주면 저승으로 간다. 정확히는 퇴치보다는 “달래준다”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동양의 유령의 모습은 햄릿 유령의 모습과 공통점이 있다. 바로 ‘목적’이 같다는 것이다. 햄릿의 유령은 클로디어스에게 당한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승에 남았다. 그리고 유령의 원한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클로디어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결국 햄릿 입장에서는 유령을 퇴치하는 것이 아닌 유령의 억울함과 슬픔 등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메커니즘으로서 유령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유종만(2007)에 따르면 한국 공포영화인 <미녀 공룡묘지>(1985), <원한의 공동묘지>(1983), <여곡성>(1986), <며느리의 한> 등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원한을 품고 죽게 된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공포영화에서 여귀의 의미는 ‘한을 품고 죽은 여인의 복수’, 즉 ‘복수의 메커니즘’이다. (공포영화 속에서 여귀가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엔 여자가 남자보다 한이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가해자, 즉 여귀는 현실에서는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는 햄릿에서 선왕의 모습인 유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복수의 메커니즘으로서 유령을 본다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길성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메커니즘’은 산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한다.<sup>5)</sup> 이 같은 복수 메커니즘은 햄릿에서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유종만(2007)에 따르면 동양 공포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은 주인공이 그 배후를 파헤치는 것이며, 귀신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주인공이 애쓰는 경우가 많다. 햄릿의 유령도 이와 같은 스토리 라인으로 유령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극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귀신담이나 <링>, <여고괴담> 등 현대의 공포영화에서도 유령의 등장은 주변 사람을 하나 둘씩 죽여가게 한다. 이는 결국 햄릿 극에서도 점차 인물들이 죽어간다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기본적인 유령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모습의 유령이든 결국 유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은 후의 존재라는 개념이다. 유령은 사람이 죽어서 변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인간과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산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그들의 모습과 행태는 인간에 의해 해석된다. 햄릿 유령의 모습이 선왕처럼 보이거나, 한국의 유령의 모습이 처녀 귀신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령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햄릿 극에서 유령은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을 유령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하였다. 진수현(2019)에 따르면 영화 <월하의 여곡성> 중 원귀가 된 명선은 아침이 밝아 오려하자 “지금은 전기 쓰면 참 좋아여. 전기불 켜 치면 귀신도 없네. 그땐 귀신이 있어…”라는 혼잣말을 한다. 여기에서 귀신에 대한 인식 양상은 아침이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시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귀신은 음의 성질을 지닌 존재로 규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날이 밝으면 귀신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이는 햄릿 유령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난 네 아버의 혼령으로 밤에는 일정 기간 나다니고 낮에는 불에 갇혀 굶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sup>6)</sup>

5)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8, p.39.

6)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최종철, 민음사, 2009, 43쪽.

위 구절을 통해, 햄릿의 유령도 결국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결국 햄릿에서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유령의 능력 혹은 제약,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동양의 유령의 특징과 햄릿 유령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공통점을 찾았다. 이를 통해 햄릿 유령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기존 콘텐츠 유령에 나타나는 특징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콘텐츠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령이 햄릿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나는 햄릿 유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4. 햄릿 텍스트 유령 규정과 불확실성

유령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햄릿왕자의 정신 질환의 일부일까? 아니면 유령을 이외의 다른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유령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힘든 불확실한 존재이다. 이런 불확실함은 사실 햄릿 극 전체 세계의 전반적인 속성과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햄릿의 세계는 확실한 답이 아닌 불확실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입부가 ‘누구나?’로 시작하고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당장 수녀원으로 가시오 왜 죄인들을 낳고 싶어하는거요?’ 등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 같은 독자들도 햄릿과 같이 고뇌의 세계로 끌어당긴다.

또한 불확실성은 유령의 존재나 극 전체뿐만 아니라 극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는 유령의 명령과도 연결된다. 유령은 햄릿에게 선왕 살해의 비밀을 밝히며 정의를 실현하라고 햄릿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우리는 햄릿을 읽으며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선왕을 살해하는 불의를 저지른 클로디우스를 향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햄릿도 삼촌인 클로디우스를 죽이는 불의를 저질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햄릿은 불확실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클로디우스를 살해하고 나서도 우리는 복수가 성공한 결말이 과연 정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가 다 죽고 나라마저 노르웨이에게 빼앗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햄릿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닌 사적복수를 실현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정의조차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햄릿 극 자체와 햄릿의 정의 실현을 향한 여정은 모두 존재부터가 불확실한 유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령이라는 장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햄릿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 참고문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민음사(2009), p222.

유종만, 공포 영화를 통해 본 동서양의 귀신 표현에 관한 분석, 학위논문(석사) - 카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007, p.198

정솔미, 한국 문헌 소재 귀신담 연구,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p315.

진수현, 문화콘텐츠에 수용된 鬼神 樣相 研究, 학위논문(박사)-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p275.